

『內經』에 나타난 腦의 概念 및 生理的 機能에 關한 研究

東新大學校 附屬 韓方病院 循環器內科學教室*

金起錄, 洪碩, 姜和廷*

ABSTRACT

Study on the meaning and biological function of brain in Nei-jing(內經)

Ki-rok Kim, Seok Hong, Hwa-jeong Kang*

Department of Circulatory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Na-ju, Korea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investigate Brain in Nei-j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Kidney energy becomes the marrow by warm caring function of Meong-mun(命門) and the marrow becomes brain by ascending and gathering between a hole Back-hoi(百會) and a hole pung-ji(風池)
2. Brain is a sea of the marrow that five vital organs are eraporated together.
3. In Nei-jing(內經), there is a explanation the connectin between brain and mind, thanking by drawing in a concept of head.

접수일 : 1999. 6. 29

심사일 : 1999. 7. 15

4. Brain regulates physical exercise.
5. There is a direct connection between brain and biosis.
6. Brain achieves function of sense, relating with the five sensory organs.
7. Brain controls a change of emotion.
8. Brain has immunological function.

Keyword: brain, Nei-jing(內經)

I. 緒論

腦는 脊髓와 함께 中樞神經系를 形成하며 運動과 感覺을 主宰하는 運動 領域과 感覺 領域이 있을 뿐만 아니라 情緒 感情에 關與하며 學習, 記憶, 言語, 行動 外에도 思索, 判斷, 創造의 精神機能 등 가장 高等한 精神活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¹⁾²⁾³⁾

韓醫學에서 腦에 대한 認識은 《黃帝內經》에서 “奇恒之府”⁴⁾, “髓之海”⁵⁾라 하여 獨立된 器官이 아닌 臟腑의 機能이 發顯되는 被動的인 器官으로 把握해 왔으며, 腦에 대한 論述은 《黃帝內經》中 여러 編에서 散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다소 體系의이지 못하고, 특히 <素問·靈蘭秘典論>⁶⁾에서 “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이라 한 後心

의 精神的인 側面에서의 機能을 強調하였다⁷⁾⁸⁾.

그 후 唐代의 孫⁹⁾, 明代의 李¹⁰⁾을 거치면서 精神 意識 思惟活動과 腦와의 關係에 대한 研究가 深化되었고, 清代에 이르러 西洋醫學이 導入되면서 그 영향을 받은 匯通學派들에 의해 汪¹¹⁾의 腦主記憶說, 王¹²⁾의 靈機記性在腦說 등의 理論이 提示되어 腦에 대한 認識이 內經時代의 藏象學的인 思考에서 腦髓中心的인 思考로 發展하게 되었다.

官者 不得相失也. 故主明則下安 以此養生則壽 歿世不殆 以爲天下則大昌.”

- 1) 金祐謙, 人體의 生理, 서울: 생명의 이치, 1992; 192.
- 2) 貝本泓 외, 東醫心系內科學, 서울: 書苑堂, 1987; 27.
- 3) 文裕典 외, 東醫病理學, 서울: 高文社, 1990; 215-216.
-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23. “腦髓骨髓膽女子胞, 此六者, 地氣之所生也, 皆藏於陰而象於地, 故藏而不寫, 名曰奇恒之府.”
-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上揭書; 34. “腦爲髓之海, 其輸上在於氣蓋, 下在風府”
-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35. “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 凡此十二

- 7) 李挺, 精校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7, 82. “心君 臟也, 神明居焉. 心者 一身之主 君主之官……有神明之心 神者 氣血所化 生之本也.”
- 8)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1; 201. “心者 神之 舍中虛不過徑寸而神明居焉 .事物之滑如理亂 如涉驚濤或 怵揚或懲創或喜怒或思慮”
- 9) 孫思邈, 千金要方, 서울: 大成文化社, 1984; 519. “頭者 身之元首 人身之所法 氣口精明 三百六十五絡 皆上歸於 頭. 頭者諸陽之會”
- 10) 李時珍,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5; 1108. “…腦 爲元神之府 而鼻爲命門之竅…”
- 11) 汪訊庵 : 增補本草備要,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pp.119-120, 1983. “人之記性皆在腦中 小兒善忘者 腦未滿也. 老人健忘者 腦漸空也. 凡人外見一物 必有一 形影留于腦中 昂思今人每記憶往事 必閉目上瞪而思索 之 此即凝神于腦之意也.”
- 12) 王清任, 醫林改錯, 台北: 臺聯國風出版社, 1976; 22-24. “靈機記性 不在心 在腦 一段本不當說 縱然能 說 必不能行.”

이에 著者は 腦의 生理, 機能에 대한 正確한 理論을 定立하고자 먼저 《黃帝內經》에 나타난 腦學說을 中心으로 文獻 考察을 한 結果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1. 參考文獻은 時代順으로 羅列하였다.
2. 《黃帝內經》에 記載된 45개의 '腦'字에 대해 研究, 考察하였다.
3. 參考文獻은 《黃帝內經》을 爲主로 한 韓醫學書籍 中 腦의 生理 및 機能에 關하여 研究, 考察하였다.

III. 總括 및 考察

1) 腦의 發生學的인 面

腦의 位置와 生成에 對해서는 <靈樞·海論>¹³⁾에서 “腦髓之海, 其輪上在於其蓋, 下在風府.”라 하여 腦는 위로는 百會穴과 아래로는 風府穴 사이, 즉 頭蓋骨 안에 髓가 모여 있는 것으로 定義할 수 있다.

腦의 發生學的인 側面에서는 <靈樞·經脈>¹⁴⁾에서 精이 먼저 生한 後 그 精에 의하여 腦가 生成됨을 말하였고, 張¹⁵⁾은 先天水火의 精氣에서 먼저 兩腎이 生하고 腎精이 上注하여 腦髓가 生한다고 하여 具體的인 腦의 發生 過程機轉을 說明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腦는 腎精이 命門의 溫養作用에 의하여 髓가 되고 그 髓가 다시 上注하

여 頭部에 모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靈樞·五癆津液別>¹⁶⁾에서 水穀의 津液에 의해서 腦가 補益된다 하여 腦의 後天的 發達の 條件이 攝生에 있음을 말하였다.

2) 髓之海 側面에서의 腦

<素問·五藏生成論>¹⁷⁾에서 “諸髓者皆屬於腦”라 하였고, <靈樞·海論>¹⁸⁾에서는 “腦爲髓之海 其輪上在於其蓋 下在風府”, <素問·奇病論>¹⁹⁾에는 “髓者以腦爲主”라 하여 모든 髓를 腦에 歸屬시켰다. 이 후 王²⁰⁾은 腦는 髓之海이며, 眞氣가 모이는 곳이라 하여 腦의 意味를 髓의 集合處에서 眞氣의 所居로 擴張시켰으며, 李²¹⁾와 許²²⁾는 腦髓를 髓精이 升降하는 道路로 把握하였고, 王²³⁾은 飲食物로부터 氣血이 生하며 그 精汁 中 淸한 것이 化하여 髓가 되고 다시 上行하여 腦에 이른다 하여 髓之海로써의 뇌를 水穀之淸氣의 所居로 밝혔다. 髓海, 즉 腦의 機能에 대하여 張²⁴⁾은 “是髓海之上通于天而下通於經水也. 是十二經脈 應地之十二經水 經水者皆注於海 海有東西南北而海之運氣上通於天”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天’은 陽氣를 象徵하고 ‘經水’는 陰精을 象徵하므로 髓海는 五藏之精이 氣化되어 機能을 發하는 곳으로 認識하였다. 또 張²⁵⁾은 先天水火의 精氣에서 먼저 兩腎이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上揭書; 69. “五穀之精液和合而爲膏者 內滲入於骨空 補益腦髓 而下流於陰股”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上揭書; 167.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上揭書; 188.

1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上揭書; 323.

20)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上冊)86. “腦爲髓之海 眞氣之所聚”,

21) 李挺, 精校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7. “腦者髓之海 諸髓皆屬於腦 故上至腦 下至尾骶 髓則腎主之.”

22)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1; 201. “腦者髓之海 諸髓皆屬於腦 故上至腦 下至尾骶 皆精髓升降之道路也.”

23) 王濟任, 醫林改錯, 台北: 臺聯國風出版社, 1976; 22.

24) 馬元臺 외, 黃帝內經,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2; 96.

25) 張介賓, 類經, 上揭書; 58.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上揭書; 56.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上揭書; 49.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 腎藏精 主骨 生髓通于腦”

15) 張介賓,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5. “…以先天水火之精氣 先生兩腎, 腎精上注 腦髓生.”

生하고 腎精이 上注하여 腦髓가 生한다고 하여 腦는 腎精이 命門의 溫養作用에 의하여 髓가 되고 그 髓가 다시 上注하여 頭部에 모인 것이라 하여 全身 陰陽의 調節에 의해 腦가 發生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李²⁶⁾는 이러한 腦를 '元神之府'라 하여 神明의 物質的 基礎를 이루고 있을 뿐 만 아니라, 元神이 머무는 곳으로 把握하였다.

3) 元神과 腦

神에 대해서는 <素問·天元紀大論>²⁷⁾에서 “物生謂之化 物極謂之變 陰陽不測謂之神”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의 神은 氣의 陰陽 兩方面으로 對立統一하는 矛盾에서 發生하는 外部表現形式을 말하는 것으로 生命機能活動의 總體的 表現이며 人間의 精神活動 또한 生命機能의 重要한 部分이므로 精神意識活動 역시 神의 範疇에 속한다²⁸⁾²⁹⁾.

‘神은 어느 器官에 歸屬되는가’하는 問題는 《內經》에서부터 出發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心과 神의 關係에 대해서 <素問·靈蘭秘典論>에서 “心者君主之官 神明而出焉”이라 하여 精神, 意識, 思惟活動이 心에서 비롯된다고 하였고, 이러한 心의 活動에 대하여 <靈樞·本神>³⁰⁾에서 外部 環境의 刺戟에 대하여 心이 처음 任한 후에 一連의 思維過程을 거쳐 對處한다 하여 判斷 能力를 心이 主管하는 것으로 把握하였다.

<內經>에는 腦와 神을 聯關시킨 直接的인 言及은 없으나 <素問·脈要精微論>³¹⁾에 ‘頭者 精明之府’라고 하여 이에 대해 <醫學衷中參西錄>³²⁾

에서 精明은 곧 神明이며 頭는 腦의 外廓이므로 여기에서의 頭를 腦로 把握하고 腦는 神明을 所藏하는 器官으로 認識하여 精神思惟活動과 腦의 機能을 連結시켰다. 《內經》以後 孫³³⁾은 “頭者, 人之元首 人神所注”라 하여 頭가 人身을 統率하고, 人神이 모이는 器官으로 頭腦를 人神의 重要臟器로 認識하였고, 許³⁴⁾는 天谷, 泥丸이라는 腦의 概念을 導入해 腦를 ‘元神之室’, ‘靈性之所存’이라 하여 頭腦를 精神活動의 中樞로 把握하여 腦와 神의 關係를 說明하였다.

李³⁵⁾은 “腦爲元神之府”라 처음으로 提倡하여 腦와 神의 關係를 直接的으로 關聯시켜 後代 醫家들에게 큰 影響을 미쳤으며, 淸初의 汪³⁶⁾은 ‘腦主記憶說’을 主張하였고, 王³⁷⁾은 神明과 記憶의 主體를 心이 아닌 腦로 보았다.

最近에 張³⁸⁾은 心과 腦의 關係를 神明의 體와 用의 關係로 說明하여 <素問·脈要精微論>의 “頭者精明之府”를 神明의 體로 보고, <素問·靈蘭秘

32)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中冊),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181. “…夫精明則神明也. 頭即腦之外廓 腦即頭之中心點也. 國家之貨財藏于府 茲則名之爲府者 確定其爲神明所藏也.”

33) 孫思邈, 千金要方, 上揭書; 519.

34) 許浚, 東醫寶鑑, 上揭書; 201. “頭爲天谷以藏神. …黃帝內經曰 天谷元神守之 自眞言人身中上有天谷泥丸藏神之府也 …天谷 元宮也. 乃元神之室 靈性之所存 是神之要也.”

35) 李時珍, 本草綱目, 上揭書; 1108.

36) 汪訊庵, 增補本草備要,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3; 119-120. “吾鄉金正希先生嘗語余曰 人之記性皆在腦中 小兒善忘者 腦未滿也 老人健忘者 腦漸空也. 凡人外見一物 必有一形影留于腦中 昂思今人每記憶往事 必閉目上瞻而思索之 此即凝神于腦之意也.”

37) 王清任, 醫林改錯, 台北: 臺灣國風出版社, 1976; 22-24. “…靈機記性 不在心 在腦 一段本不當說 縱然能說 必不能行.”

38)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中冊), 上揭書; 181. “蓋言神明屬藏于腦 而用時實發露于心 故不曰藏而曰出 出者即由此發露之爲也. 于以知脈要精微論所言者神明之體 靈蘭秘典所言者神明之用也.”

26) 李時珍,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5; 1108.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上揭書; 167.

28) 朴贊國, 病因病機學, 서울: 傳統醫學研究所, 1992; 39.

29)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台北: 五洲出版社, 1984; 130. “氣乃神之祖 精乃氣之子 氣者神精之根蒂也 大矣哉 積氣以成精 積精以全神 必清必靜 御之以道可以爲天人矣 有道者能之子何人哉 切宜省言而已.”

3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上揭書; 243. “所以任物者謂之心 心有所憶謂之意 意之所存謂之志 因志而存變謂之思 因思而遠濼謂之慮 因慮而處物謂之智”

3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上揭書; 221.

典論>의 “心者 君主之官 神明而出焉”를 神明的 用으로 보아 腦의 神이 心의 機能에 의해 發揮된다고 하여 心과 腦가 協助하여 思惟活動을 하는데 腦가 爲主가 된다는 觀點을 提示하였다.

또한, 陳³⁹⁾은 ‘腦主神明’과 ‘心主神明’의 論爭에 있어서 大部分의 醫家들은 ‘心腦共主神明’의 理論을 받아들이며서도 주로 腦에 重點을 두고 있으며, 이는 腦가 神明을 主管한다는 事實을 臨床에서 實證的으로 經驗한 바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從⁴⁰⁾은 神의 歸屬問題가 <內經>의 ‘心藏神’, ‘心主神明’과 ‘腦爲元神之府’, ‘頭是心神所居’⁴¹⁾에서부터 始作된 것은 神의 概念이 統一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廣義之神과 狹義之神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腦藏元神’의 神은 廣義之神이며, ‘心藏神’의 神은 狹義之神으로서 心의 神은 腦의 元神의 統率下에 있다는 ‘以腦爲主 心腦協助共做神明’의 觀點을 齊唱하고 腦의 元神을 體로 心의 神을 用으로 把握하여 張⁴²⁾과 一致된 意見을 보였다.

以上을 綜合해 보면 內經時代에는 心이 精神活動을 主管한다는 學說이 支配的이었으나 後에 醫學이 發達됨에 따라 腦의 精神的인 機能 및 活動이 強調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腦와 感覺과의 關係

人體 中 가장 敏感한 感覺 器官은 耳, 目, 口, 鼻 등이다. 楊⁴³⁾이 “七竅者 精神之戶牖也”라고 한 것과 같이 五官의 機能은 全的으로 精神에 依存하여 機能을 發한다 하였는데 頭와 腦는 ‘精明之府’, ‘心神所居’, ‘元神之府’이므로 五官의 機能을 主管하게 된다.

腦와 感覺과의 具體的인 言及은 <素問·脈要精微論>⁴⁴⁾에 “頭者 精明之府. 夫精明者 所以視萬物 別白黑 審短長 以長爲短 以白爲黑 如是則精衰矣”라 하여 腦가 視覺機能과 事物을 判斷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靈樞·口問>⁴⁵⁾에 “腦爲之不滿 耳爲之苦鳴 頭爲之苦傾 目爲之眩”이라 하여 腦病으로 五官의 感覺 機能의 異常이 나타날 수 있다 하였고, <靈樞·海論>⁴⁶⁾에 “腦轉耳鳴 目無所見”, <素問·氣厥>⁴⁷⁾에 “膻移熱於腦 則辛顏鼻淵”이라 하여 耳, 目, 鼻와 腦의 關係를 說明하였다.

後代에 이르러 李⁴⁸⁾는 各竅에 의해 얻어진 感覺은 腦에 傳達됨을 말하고 있으며, 王⁴⁹⁾은 視覺, 聽覺, 嗅覺 등의 感覺이 各竅를 통해 받아들여져 腦로 傳達되어 客觀化된다고 說明하였다.

5) 腦와 運動과의 關係

運動은 生命 活動의 形式이며 各種 身體 活動은 모두 肝의 機能과 聯關이 있는 것으로 把握되고 있다. <靈樞·海論>⁵⁰⁾에서 肢體의 活動의 敏捷함이 髓海인 腦의 有餘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王⁵¹⁾은 腦의 病으로 말미암아 抽搐과 같은 異常 運動이 發生할 수 있다하여 全身 肢體의 運動과 腦와는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9) 陳 輝, 實用中醫腦病學, 北京: 學苑出版社, 1990; 2.

40) 從法滋, 腦病的中醫論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7-9.

4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鼎談, 1983; 87.

42)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中冊), 上揭書; 181.

4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鼎談, 1983; 87.

4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上揭書; 181.

4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上揭書; 262.

4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上揭書; 188.

4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上揭書; 268.

48)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台北: 五洲出版社, 1984; 130
“視聽明而清涼, 香臭辯而溫暖, 此內輸腦之氣而外利九竅者也”

49) 王清任, 醫林改錯, 上揭書; 24. “兩耳通于腦, 所聽之聲歸于腦 兩目係與聯藏于腦, 所見之物歸于腦 鼻通于腦, 所聞香臭歸于腦”

5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上揭書; 188. “腦爲髓之海 髓海有餘, 則輕勁多力, 自過其度, 髓海不足, 則腦轉耳鳴, 脛汕眩冒, 目無所見, 懈怠安臥.”

51) 王清任, 醫林改錯, 上揭書; 23. “死腦袋者 腦髓無氣 耳聾眼天弔如死, 有先喊一聲而後抽者 因腦先無氣”

6) 腦와 生命과의 關係

<素問·刺禁論>52)에서 “藏有要害 不可不察…… 刺頭中腦戶 入腦立死”라 하여 腦는 生命과 直接的인 關聯이 있다고 하였으며, 王53)은 腦를 찔러 腦에 損傷이 생기면 眞氣가 泄하여 곧 死亡한다고 하였고, 吳54)는 打撲에 의한 腦損傷에 의해 生命을 잃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腦와 生命과는 不可分의 關係임을 밝혔다.

7) 腦와 免疫機能

<素問·刺法論>55)에서 腦의 正氣가 充滿하여 氣가 出하면 毒氣를 避할 수 있다 하여 腦에는 抗病機能과 免疫能力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張56)은 鼻와 腦는 連繫되어 있어 腦가 嚏나 鼻를 擴張시킴으로써 毒氣를 排出시킨다고 하여 腦의 抗病力을 說明하였다.

8) 腦와 情緒

<素問·解精微論>57)에서는 外部刺戟에 의해

‘志上沖于腦’하여 悲泣이 發生된다고 하여 腦의 反應에 의해 感情의 變化가 일어난다 하였고, <素問·天元紀大論>58)에서 “天有五行御五位, 以生寒暑燥濕風, 人有五臟化五氣, 以生喜怒思憂恐.”이라 하여 腦는 頭內에 位置하여 天을 象하므로 五臟의 神을 主할뿐만 아니라 五志를 調節한다 하였다.

이러한 情志의 變化는 神에 의해 左右되는데 이 神은 腦가 主하는 元神이라 指稱할 수 있으므로 情緒 變化는 腦가 元神의 作用으로 調節된다고 볼 수 있다.

《內經》에서 腦의 概念과 生理的 機能에 대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腦는 腎精이 命門의 溫養作用에 의하여 髓가 되고 그 髓가 다시 上注하여 頭蓋內에 生成되며, 五臟之精이 모여 氣化되는 髓之海로서 身體의 運動, 感覺을 主管하고, 情緒의 變化를 調節하고, 身體의 免疫力을 向上시키는 등 生命과 直接的인 關聯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精神, 思惟活動에 있어서는 心이 주된 役割을 修行하고 腦는 그 機能이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다. 이와 같이 《內經》에서의 腦概念은 現代醫學에서의 腦機能과 恰似하며, 獨自의인 內容도 있어 此後 이에 對한 研究가 더욱 이루어져 韓醫學에서의 腦學說을 定立해야 할 것이다.

IV. 結 論

《黃帝內經》에 나타난 腦에 관한 文獻的 考察을 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腦는 腎精이 命門의 溫養作用에 의하여 髓가 되고 그 髓가 다시 上注하여 百會穴과 風府穴 사이에 모여 生成된다.

是以水流而涕從之者 其行類也。 夫志悲者惋 惋則沖陰 沖陰則志去 志去則神不守精 涕泣出也。”

5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上揭書; 37.

- 5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上揭書; 246.
53) 王琦,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65. “腦戶 穴名也. 在枕骨上 痛于腦中 然腦爲髓之海 眞氣之所聚 針入腦則眞氣泄 故立死”
54) 吳謙,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24. “顛者 頭頂也. 其骨男子三叉縫 女子十字縫 一名天靈蓋 位居至高 內函腦 髓如蓋 以統全體者也. 或碰撞損傷 如卒然而死”
5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上揭書; 246. “不相染者, 正氣存內, 邪不可干, 避其毒氣, 天牝從來, 復得其往, 氣出於腦, 卽不邪干. 氣出於腦, 卽室先想心如日.”
56) 張介賓, 類經, 上揭書; 46. “乃天之邪氣 若吾身正氣內固 則邪不可干 故不相染也 天牝 鼻也 鼻受天之氣 … 氣自空虛而來 亦欲其自空虛而去 故曰避其毒氣 天牝從來 復得其往也 蓋以氣通於鼻 鼻連於腦中 流布諸經 令人相染矣 氣出於腦 謂嚏或張鼻泄之 則邪從鼻出 毒氣可令散也.”
5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上揭書; 84. “泣涕者 腦也 腦者 陰也 髓者 骨之充也 故腦滲爲涕. 志者 骨之主也

2. 腦는 五臟之精이 모여 氣化되는 髓之海이다.
3. 精神, 思惟活動 側面에서 腦는 頭의 概念과 一致한다.
4. 腦는 身體 運動을 調節한다.
5. 腦는 生命과 直接的인 聯關이 있다.
6. 腦는 五官과 連繫되어 感覺 機能을 修行한다.
7. 腦는 情緒의 變化를 調節한다.
8. 腦는 免疫, 抗病 機能을 가지고 있다.

參考文獻

1. 金祐謙, 人體의 生理, 서울: 생명의 이치, 1992; 192.
2. 具本泓 외, 東醫心系內科學, 서울: 書苑堂, 1987; 27.
3. 文裕典 외, 東醫病理學, 서울: 高文社, 1990; 215~216.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3, 34~42, 57, 65, 92, 132, 157~190, 209~216, 233, 244, 285~324.
5. 程士德, 素問注釋滙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上冊)174~175, 235~236, 514~516, 602~604, 666~668, (下冊) 6~10, 92~93, 410, 412, 471, 514~515.
6. 王琦,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65~88, 173~176, 202~225, 238~240, 264~268, 412~418, 435~468, 483~484.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37, 68~79, 138~183, 241~267, 342, 345.
8.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上冊)pp.86~87, 213, 215~220, 415~416, 433, 484~485, 499~515, (下冊)118~119, 435~439, 454~455.
9. 李挺, 精校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7, 82.
10.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1; 141, 201.
11. 楊力, 周易與中醫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314~315.
12. 孫思邈, 千金要方, 서울: 大成文化社, 1984; 519.
13. 李時珍,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5; 1108.
14. 成疆慶, 腦의 機能에 대한 藏象論的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1995; 16(1); 468~474.
15. 王新華, 中國歷代醫論選, 江蘇: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29~32.
16.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221.
17. 從法滋, 腦病的中醫論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7~9.
18. 王肯堂, 六科證治準繩, 서울: 大成出版社, 1992; 206~207.
19. 李用粹, 證治彙補, 台北: 旋風出版社, 1976; 221.
20. 龔廷賢,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257.
21. 武之望, 濟陰綱目, 서울: 一中社, 1992; 422.
22. 王清任, 醫林改錯, 台北: 臺聯國風出版社, 1976; 22~24.
23.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中冊),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181~182.
24. 陳輝, 實用中醫腦病學, 北京: 學苑出版社, 1990; 2.
25. 馬元臺 외, 黃帝內經,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2; 96.
26. 張介賓,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 5.
27. 朴贊國, 病因病機學, 서울: 傳統醫學研究所, 1992: 39.
28.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台北: 五洲出版社, 1984: 130.
29. 汪訊庵, 增補本草備要,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3: 119~120.
30.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鼎談, 1983: 87, 470.
31. 陳士鐸, 辨證奇聞, 서울: 杏林出版社, 1973: 180.
32. 吳謙,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24.
33. 董黎明, 實用中醫內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579.
34. 唐宗海, 血證論, 台北: 力行書局有限公司, 1984: 159.
35.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363.
36. 徐學山, 醫學門徑,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1977: 323.
37. 金完熙 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0: 47.
38.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中冊), 上揭書; 181. “蓋言神明屬藏于腦 而用時實發露于心 故不曰藏而曰出 出者即由此發露之爲也. 予以知脈要精微論所言者神明之體 靈蘭秘典所言者神明之用也.”
39. 陳輝, 實用中醫腦病學, 北京: 學苑出版社, 1990: 2.
40. 從法滋, 腦病的中醫論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7~9.
4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鼎談, 1983: 87.
42.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中冊), 上揭書; 181.
4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鼎談, 1983: 87.
4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上揭書; 181.
4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上揭書; 262.
4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上揭書; 188.
4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上揭書; 268.
48.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台北: 五洲出版社, 1984, 130 “視聰明而清涼, 香臭辯而溫暖, 此內輸腦之氣而外利九竅者也”
49. 王清任, 醫林改錯, 上揭書; 24. “兩耳通于腦, 所聽之聲歸于腦 兩目係與聯藏于腦, 所見之物歸于腦 鼻通于腦, 所聞香臭歸于腦”
5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上揭書; 188. “腦爲髓之海 髓海有餘, 則輕勁多力, 自過其度, 髓海不足, 則腦轉耳鳴, 脛油眩冒, 目無所見, 懈怠安臥.”
51. 王清任, 醫林改錯, 上揭書; 23. “死腦袋者 腦髓無氣 耳聾眼天弔如死. 有先喊一聲而後抽者 因腦先無氣”
5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上揭書; 246.
53. 王琦,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65. “腦戶 穴名也 在枕骨上 痛于腦中 然腦爲髓之海 真氣之所聚 針入腦則真氣泄 故立死”
54. 吳謙,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24. “顛者 頭頂也. 其骨男子三叉縫 女子十字縫 一名天靈蓋 位居至高 內函腦 髓如蓋 以統全體者也. 或礮撞損傷 如卒然而死”
5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上揭書; 246. “不相染者, 正氣存內, 邪不可干, 避其毒氣, 天牝從來, 復得其往, 氣出於腦, 即不邪干. 氣出於腦, 即室先想心如日.”
56. 張介賓, 類經, 上揭書; 46. “乃天之邪氣 若吾身正氣內固 則邪不可干 故不相染也 天牝 鼻也 鼻受天之氣 …氣自空虛而來 亦欲其自空虛而去 故曰避其毒氣 天牝從來 復得其往也 蓋以氣通於鼻 鼻連於腦中 流布諸經 令人相染矣 氣出於腦 謂嚏或張鼻泄之 則邪從鼻出 毒氣可令散也.”
5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上揭書; 84. “泣涕者 腦也 腦者 陰也 髓者 骨之充也 故腦滲爲涕. 志者 骨之主也 是以水流而涕從之者 其行類也.”

夫志悲者惋 惋則沖陰 沖陰則志去 志去則神不守
精 涕泣出也。”

58. 洪元植，精校黃帝內經素問，上揭書；37.